

[6차시] 말과 경제



1. 장사 잘돼?

“요즘 장사 잘돼?”

“잘되긴 뭐가 잘돼. 안 돼도 너무 안 돼”

경제가 어렵다 보니 너도나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도 너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말할 때는 관계없지만 글을 쓰다 보면 이런 경우 ‘~되’로 적어야 하는지, ‘~돼’로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잘돼’는 ‘잘되다’의 어간 ‘잘되’에 어미 ‘~어’가 붙어 이루어진 ‘잘되어’의 준말입니다. ‘안 돼’도 ‘안 되어’의 준말이지요. 여기에서 어미 ‘~어’를 떼어내고 어간만 남긴 형태인 ‘잘되, 안 되’로 문장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밥 먹어?”의 ‘먹어’에서 어미 ‘~어’를 떼고 “언제 밥 먹?”과 같이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입니다.

‘~되’와 ‘~돼’를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되어’로 바꿔 보는 것입니다. ‘되어’로 바꿔서 말이 되면 ‘~돼’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되’를 쓰면 됩니다. ‘잘되긴’에서 ‘되’는 ‘되어’로 바꿔 쓸 수 없으므로 ‘잘돼긴’과 같이 쓸 수 없는 거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문장의 마지막은 ‘잘돼’와 같이 ‘~돼’로 끝낸다. 둘째, 문장 중간에 나올 땐 ‘되어’로 바꿔 봐 가능하면 ‘~돼’ 불가능하면 ‘~되’를 쓴다는 것!

2. 시세 조정(?)

가뜩이나 기반이 약한 우리 증시에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 사건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세 조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시세 조정’이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정’과 ‘조종’은 구분해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조종(操縱)’은 비행기, 자동차 등 기계를 부리거나, 사람 또는 돈 등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움직일 때 쓰입니다. 비행기 조종, 원격조종, 자동조종 등은 기계를 다루는 경우이고, 배후 조종, 시세 조종은 사람 또는 돈, 가격을 결과적으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조정(調整)’은 알맞게 정돈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선거구 조정, 버스 노선 조정, 공공요금 조정, 구조 조정 등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6차시] 말과 경제



기계를 움직일 때 쓰이는 조종을 제외하고 조종과 조정을 구별한다면 조종은 어떤 것을 자기 의도대로 쥐락펴락할 때 쓰이고, 조정은 어떤 것을 개선하거나 조절할 때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시세 조정’이라고 하면 개선하거나 조절하는 것이어서 나쁠 게 없는 뜻이 됩니다. ‘시세 조종 사건’의 경우, 자기 마음대로 주가를 움직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의미하므로 ‘조종’을 써서 ‘시세 조종’이라 해야 합니다.

3. ‘세금’과 ‘요금’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 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활비와 관련한 얘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알뜰 주부들의 대화를 엿들어 봅시다.

“영희 엄마, 이번 달 수도세 얼마 나왔어?”

“말도 마. 그렇게 아꼈는데 수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세까지 합하니 지난달보다 10만원이 훌쩍 넘게 나왔어”

알뜰 주부들의 대화에서 보듯 우리가 언어생활 중에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말 중에 수도세, 전기세란 용어가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자의 4분의 1이나 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세금과 요금은 성질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요금’은 이발 요금, 택시 요금, 목욕 요금, 공항 이용 요금 등에서 보듯 물건이나 시설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비용을 뜻합니다. 따라서 전기나 수도물을 쓴 만큼 개인이 대가로 내야 하는 전기 요금, 수도 요금에 세금이란 용어는 적합하지 않겠죠.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경제 행위로 이익을 본 당사자에게 국가가 그 일부분을 내도록 하는 강제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은 번 만큼 나라에 일정 부분을 내야만 하는 세금인 것이죠.

[6차시] 말과 경제



4. ‘쇠발개발’과 ‘오리발’

한 쇼펍몰 업체 대표의 로비와 사기 행각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쇼펍몰 인허가 과정에서 정, 관계, 금융계 인사들에게 마구 로비를 하고 다니는 ‘마당발’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돈을 먹은 사람은 대부분 받은 적이 없다고 일단 ‘오리발’을 내밀다가 들통 나면 대가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발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 사람은 뒷일을 대비해 어디엔가 이들의 명단과 액수를 ‘괴발개발’ 적어 놓게 마련이죠.

‘마당발’은 볼이 넓고 바닥이 평평하게 생긴 발(평발)로 인간관계가 넓어 폭넓게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위의 경우처럼 사방에 뇌물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을 마당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엔 ‘쇠발개발’이 어울린답니다. 소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으로 아주 더러운 발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오리발’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속담처럼 시치미 떼고 탄전을 부리는 태도를 속되게 일컫는 말입니다.

‘괴발개발’에서 ‘괴발’은 고양이의 발, ‘개발’은 개의 발로, 이들의 발자국처럼 글씨를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가리킵니다. ‘개발새발, 개발개발’로 잘못 쓰기 일쑤인 단어이죠.

우리말에는 이 밖에도 동물의 발 모양에서 온 단어가 많습니다.

노리개, 반지, 비녀 등의 장신구에 보석을 고정시키는 ‘거미발’, 거문고나 가야금 등의 줄을 고르는 ‘기러기발’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든 모양새를 일컫는 ‘까치발’, 재봉틀에서 바느질 감을 눌러 주는 부속이나 쟁기의 벧 뒷면 아래쪽에 붙어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노루발’도 있습니다.

이들 ‘~발’은 더러운 ‘쇠발개발’과 그의 돈을 먹고 시치미 떼는 ‘오리발’을 제외하면 모두가 유용한 것입니다.

5. 접말을 피하자(1)

우리는 실생활에서 경제성을 매우 따지고 듭니다. 연비가 좋은 차를 사고,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에는 경제성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언어에도 경제성이 존재합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여 써야 좋은 문장과 좋은 글이 나온답니다. 군더더기 표현을 줄여 언어의 경제성을 실천해 봅시다.



<http://www.teacher.co.kr>

바른 언어표현, 유니텔연수원이 함께합니다.

[6차시] 말과 경제



겹말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한자어에 뜻이 이미 들어 있는데 우리말을 겹쳐 쓰는 일입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하다’를 붙여 쓰거나, 우리말로 바꿔 쓰면 됩니다.

① 판이하게 다르다: “두 신문의 1면 톱기사 제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 경우, ‘판이하다’ 또는 ‘아주 다르다’로 고쳐 쓸 수 있습니다. ‘판이하다’가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라는 뜻이므로 ‘다르다’를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② 결실을 맺다: “거름을 적절히 주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결실을 거두다’ ‘열매를 맺다’ 정도로 고치는 게 좋습니다. ‘결실’은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물, 또는 그런 열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맺었다’를 덧붙일

필요는 없겠죠?

③ 피해를 입다: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보았다’ ‘해를 입었다’ 등으로 고쳐 씁시다. ‘피해’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④ 남은 여생: “남은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여생’이나 ‘남은 생애’로 고치면 됩니다. ‘여생’이라는 단어에 이미 ‘남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족(蛇足)은 필요 없습니다. 글은 간결하고 명료할 때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도 ‘경제학’이 적용된답니다.

6. 겹말을 피하자(2)

이번에도 불필요한 겹말들을 알아봅시다.

① 과반수가 넘는 : “과반수가 넘는 학생이 찬성해야 통과할 수 있다”

‘반수가 넘는’ 또는 ‘과반수의’로 고쳐야 합니다. ‘과반수(過半數)’에 이미 ‘반(半)을 넘다(過)’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http://www.teacher.co.kr>

바른 언어표현, 유니텔연수원이 함께합니다.

[6차시] 말과 경제



- ② 말로 형언할 수 없다 :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장면이 많았다”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으로 고쳐 줍시다. ‘형언(形言)하다’가 ‘형용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 ③ 부상당하다, 부상을 입다 :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8명이 죽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했다’ 또는 ‘다쳤다’로 쓰는 게 좋습니다. ‘부상(負傷)’은 ‘몸에 상처를 입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 ④ 아직 시기상조다 : “미국이 이라크전 승리를 선언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아직 때가 이르다’와 같이 고쳐야 합니다. ‘시기상조(時機尙早)’는 ‘어떤 일을 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는 뜻입니다.
- ⑤ 옥상 위에 : “고층 빌딩의 옥상 위에 거대한 광고탑이 서 있다”
‘옥상에’로 고쳐 봅시다. ‘옥상(屋上)’은 ‘지붕 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심화학습

자주 사용하는 겹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다. 겹말은 한자어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거나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쓰는 데에서, 또는 그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간결하고 명료한 글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 | | |
|---------------------------------------|--------------------|
| ① 사전에 예방하다 -> 예방하다 / 사전에 막다 | |
| ② 먼저 선취점을 얻다 -> 선취점을 올렸다 / 먼저 점수를 얻었다 | |
| ③ 수많은 관객들 -> 많은 관객 | ④ 간단히 요약하다 -> 요약하다 |
| ⑤ 역전(驛前) 앞 -> 역전 / 역 앞 | ⑥ 계약을 맺다 -> 계약하다 |
| ⑦ 그때 당시 -> 그때 / 당시 | |
| ⑧ 매 시간마다 -> 매시간 / 시간마다 | |
| ⑨ 해변가 -> 해변 | |
| ⑩ 따뜻한 온정 -> 온정 | ⑪ 오랜 숙원 -> 숙원 |